폭염·태풍 겹쳐 배춧값 '금값'…한 달 만에 65% '껑충'

배추 1포기 1만2800원·전년비 96.9%↑…작황부진·재배감소 영향

무43%·상추 73% 등 급등…재료값 부담에 배추김치 품절 사태도

배추 재배면적이 줄고 작황도 부진하면서 추석 명절 직전 배추 가격이 한 달 만에 65% 뛰었다. 태풍의 잇따른 상륙 영향과 명절 수요 등도 맞물리면서 배추를 포함한 주요 채소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이처럼 배추를 비롯해 김치 재료들의 가격이 급등하고, 폭염과 폭우로 수급마저 불안해지자 유통업계에서는 '배추김치 품절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8일 광주 양동시장에서 소매 판매된 배추 1포기 가격은 1만2800원으로, 한 달 전(7760원)보다 64.9% 뛰었다. 1년 전(6500원)과 비교하면 무려 96.9% 증가한 수준이다.

aT 광주전남지역본부는 배추 가격 오름세에 대해 "배추 재배면적이 줄고 작황마저 부진했다"며 "명절 수요가 늘어날 시기에 태풍 힌남노 북상으로 중도매인들이 물량 확보에 나서면서 시중 물량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광주 배추 소매 가격은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8000원대 후반이었으나 태풍 '힌남노'가 전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5~6일에는 1만1000원대로 뛰었다.

추석 직전 배추 가격을 이달 초(1일 9000원)와 비교하면 일주일 만에 42.2% 오른 셈이다.

배추의 가격 오름세는 추석 명절이 지나도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풍 영향으로 배추 품위가 저하하고 재배면적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관측자료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총 1만3206ha로, 전년보다 1.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남지역 농민들은 가을배추 면적을 전년보다 4.3% 늘릴 계획을 세웠지만, 경기·강원(-4.1%)과 충청(-5.0%), 영남(-1.8%) 등 다른 지역이 줄면서 재배면적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호남은 지난해 가을배추 출하기에 가격이 강세를 보여 재배의향이 늘었지만, 나머지 지역은 지난해 작황이 좋지 않아 배추밭에 콩이나 들깨 등 대체작물을 심었다.

올해 여름 폭염과 가뭄, 잦은 비 등 불규칙한 날씨가 거듭하면서 배추 외 주요 채소 가격은 한 달 새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광주에서 무 1개 가격은 연휴 직전 5330원으로, 한 달 전(3730원)보다 42.9% 올랐고, 1년 전(2200원)보다 142.3% 뛰었다.

취청오이 1개 값은 1500원으로, 전달(1170원)보다 28.2%, 1년 전(1000원)보다 50.0% 상승했다.

대파(1㎏)도 한 달 전(2500원)보다 24.0%, 1년 전(2200원)보다 40.9% 오른 3100원으로 나타났다.

깻잎(100g 2660원)과 상추(100g 1820원), 애호박(1개 2850원)도 한 달 전 가격보다 각각 40.0%, 73.3%, 92.6%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배추를 비롯해 김치 재룟값이 급등하자 수급이 불안해진 데다, 포장김치 제품을 찾는 사람도 크게 늘어 온라인몰과 대형마트를 포함한 곳곳에서 김치가 이미 동난 상태다.

지난 8일 광주 송정매일시장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배추 한 망(3포기) 가격이 4만원으로 뛰어 김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며 "일주일 전 5000원에 팔던 4분의 1포기 분량 배추김치를 현재는 같은 분량에 1만원에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배추김치 품절 사태는 CJ제일제당, 종가집, 대상 등 유명 김치 전문 브랜드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 품질 기준에 충족하는 품질의 배추가 적은 것도 품절 사태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 쌀 많이 애용해주세요" 농협전남지역본부 임직원들이 12일 오전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귀경객을 대상으로 전남쌀 10대브랜드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용 쌀을 나눠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지방국세청, 근로장려금 운영 현장 점검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은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9월~1~15일)을 최근 북광주세무서를 방문해 '장애인·노약자 도움창구'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윤영석 청장은 근로장려금 신청 도움창구를 둘러보며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장려금 신청을 지원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사진〉

윤영석 청장은 "장애인·노약자 도움창구를 방문한 납세자들이 장려금을 신청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앱(손택스)이나 ARS 전화(1544-9944),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비트코인, 3000만원대 회복

인플레 둔화 기대감

12일 오전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며 약 한 달 만에 3000만원대를 회복했다.

이날 오전 10시 46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 넘게 오르며 3075만원까지 올랐다.

3000만원대 회복은 지난달 19일 이후 25일 만이다. 이후 소폭 내리며 비트코인은 오후 12시 55분 현재 0.74% 오른 2986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3070만5000원을 기록한 뒤 현재 0.80% 오른 2991만6000원을 나타냈다.

오는 13일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났다.

시장은 8월 CPI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전월(8.5%)보다는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확인되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향후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지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커진다.

그간 상승세를 보여왔던 이더리움은 1.5%가량 내린 235만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일자리사업' 참여 청년 모집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19일까지 순천시에서 거주 가능한 청년을 대상으로 '콘텐츠산업 청년일자리 창출 리쇼어링 프로젝트', '전남 청년 툰(toon)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청년을 신규 채용한 애니메이션·웹툰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의 채용 전형을 통해 참여자로 선정되면 최소 연 2400만원(세전 기준) 이상의 급여와 별도의 활동수당이 지급된다. 참여 조건은 만 39세 이하 순천시 거주 가능 청년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19일까지 사업홈페이지(jani.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새얼굴

"지역발전, 건설·교통 안전에 최우선 노력"

이창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호남권 지역발전과 건설·교통분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제58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이창희(56·사진)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이 임명됐다.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실시된 국토교통부 인사에서 이창희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이 신임 익산국토청장으로 발령됐다.

이창희 익산국토청장은 충북 진천 출신으로, 진천고등학교와 충북대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제41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1998년 철도청에서 공직을 시작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 철도운영과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 신임 청장은 국토, 토지, 철도, 항공 등 국토교통부의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두루 섭렵한 행정가로, 성실함과 꼼꼼함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밖에 내부에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직원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희 청장은 "호남지역 발전과 안전을 중점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신망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